

KT 노동조합

KT TRADE UNION
발행일: 2008년 5월 30일(금)

29th

■ 발행인: 이재식 ■ 편집인: 최광수 ■ 주소: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대표전화: 031-727-4820(편집국 4836) ■ 팩스: 031-727-4815 ■ 홈페이지: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디자인 여백(02-2279-9631)

전국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

지부 여성부장, 여성대의원을 중심으로 교육 이뤄져

2008년 전국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이 5월 13일부터 23일까지 대전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지부 여성부장, 여성대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주요교육내용은 △대내외 정세 △조합간부의 자세와 역할 △정보통신산업의 변화와 대응 △위원장 간담회 △복지후생 △선전선동 △여성의 지위와 역할 등이다. <교육참가기 3면>

첫날, 대·내외 정세 교육시간은 이명박 정권의 정치·경제·노동정책 및 통신산업의 전망과 이에 따른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조합간부로서 가져야 할 덕목과 조합원과 호흡하는 자세와 역할 교육이 이어졌다. 더불어 정보통신산업의 변화와 대응 시간은 현재 통신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조망하고 KT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합간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

이후, 위원장과의 간담회 시간에서 이재식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600만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노골적으로 공무원 감축을 선언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경제의 문제가 나와 관련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모든 것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조합간부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이어 KT와 KTF의 통합이 8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이었다면서 큰 틀에 있어서 긍정적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부정적인 사안도 존재하는 만큼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8년 역량강화 교육은 조합간부들이 1박2

일의 짧은 시간으로 인해 밤11시를 넘기는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지만 최초의 여성간부 교육인 만큼 참가자들의 관심도는 매우 높았다.

5월 1일, 118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열려

민주노총 대정부 직접교섭, 10대영역 100대 과제 선정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물가 불안과 의료, 교육, 보육, 주거, 노후 등 민생고 심화 △공공부문 사유화 및 구조조정 △국민생활 및 안전한 일터를 위협하는 정책 도입 등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시각화 정책이 서민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 및 공공부문 노동자 등 전체 민중세력을 다시 규합하여 새로운 노동의 역사를 써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근로기준법 규제 완화와 관련된 발언을 규탄하며 공식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대회를 시작으로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10대 영역과 100대 과제로 구성된 대정부 요구 안을 제출하고 대정부교섭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를 무시하면 5월부터 시작되는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투쟁을 시작으로 6월 말 7월 초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총에서는 대정부 직접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압박으로 5월 24일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공동투쟁을 비롯한 본격적인 대중 행동 전을 준비 중이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10대 영역, 100대 과제'에는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 및 특수고용 노동 3권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산별교섭 법 제화와 단체협약 적용 ▲친재벌 정책중단 및 일방적 FTA추진반대 ▲의료, 교육 사회서비스 시장화 중단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 중단 ▲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과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15% 쟁취와 공무원사학연금의 올바른 개혁 ▲언론, 금융 공공성 확보 ▲대북 적대정책 철회 및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대운하 사업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총 대오는 결의문 낭독을 끝낸 후 본 대회가 열린 대학로에서 종로를 거쳐 청계천까지 행진을 벌였다.



KT그룹 노동조합협의회 대표자회의 개최

"각단사 임금·복지현황 공유키로"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5월 15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지난번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논의된 2008년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핵심사업별 실행방안 및 사업별 연간 추진일정과 주요 업무분장에 대해 보고받은 이후 각 단사 대표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KT노동조합 이재식 위원장을 비롯한 각 단사의 대표자들은 사측의 사업 다각화 움직임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임단협과 KT그룹노동조합 형태의 산별노동조합을 건설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6월말까지 KT그룹 재편에 따른 공동대응 방안 연구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세부 추진계획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2008년 실질적인 공동임단협의 준비를 위해 각 단사의 임금 및 복지현황에 대한 전체 자료를 신속하게 공유하자고 결의했다.



전국지방본부 조직국장 회의 열어

체육행사 세부내용 공유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

노동조합은 5월 22일 대전연수원에서 전국조직국장회의를 열고 체육행사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류춘용 조직처장은 대전연수원에서 진행된 여성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 상황을 설명하면서 참가한 간부들이 교육내용에 만족하고 있고, 교육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미 조합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현안사안에 대하여 질문이 나오고 있다며 조합활동에 대한 전과가 미진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모든 조합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국조직국장들은 전국조합간부 추경대회의 세부 일정을 공유하고 조 추첨을 실시했다.

"거기 가면 다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찾으시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복지·뉴스를 한눈에

- 매일매일 생생한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 조합소식, 일일소식지, 관련기사, 노보, 영상자료, 사진자료

우리끼리 나누는 정보

- 조합원 게시판
- 지방본부별 커뮤니티, 조합원경조사

내말쯤 들어주소

- 고충처리, 토론회시판, 설문조사

유익한 여가생활

- 정보마당, 유머광장

www.kttu.or.kr

방통위 IPTV법 시행령 공청회

정부, 6월말 시행령·고시 모두 마무리

콘텐츠 동등접근

콘텐츠 동등 접근과 관련, 케이블TV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가 사유재산 침해 우려가 있다며 콘텐츠 동등 접근 조항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반면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는 안정적 IPTV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정성관 매일경제TV 이사는 "콘텐츠 동등 접근은 납득할 만한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모순"이라며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규 MBC 뉴미디어부장은 "콘텐츠 동등 접근은 시청률이 낮더라도 필요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강제 송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시행령(안)은 시청률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주교 KT상무는 "주동형비디오(VoD)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필수적 채널을 원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면서 "정당한 대가를 전제로 주요 채널 10% 등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면 IPTV 사업자간 차별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지성우 단국대 법대 교수는 "IPTV 제공 사업자의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동등 접근을 규정해야 한다"며 사후적 콘텐츠 동등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반면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콘텐츠 동등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비스 개시 이후 IPTV 사업자가 콘텐츠 투자 및 개발 등을 소홀히 할 경우에 콘텐츠 동등 접근을 제한하면 된다"며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망 동등접근

망 동등접근과 관련 현재 방통위는 망 필수설비

의 구체적 대상을 고시로 정하기로 하고 관련 TF를 구성해 논의의 중요도 알려졌다. 망이 없는 대표사업자인 OCN IPTV 김철균 대표는 "사실상 고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망 없는 사업자의 실질적인 서비스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대로 될 경우 망 없는 사업자의 출현이 원천봉쇄될 수도 있기에 어떤 식으로든 합리적으로 모범의 정신에 부합하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배력 전이방지-회계분리

초고속 인터넷 시장지배력 사업자인 KT의 망대어 문제와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 방안도 여전히 쟁점이다. '회계분리'만으로 IPTV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를 방지한다는 시행령 안에 다른 사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나, 방통위는 사후 규제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서병조 정책관은 지배력 방지 방안에 대해선 "중전 통신사업자에 적용된 회계분리보다 엄격한 내용의 고시를 준비 중"이라며 "경쟁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지배력 전이 방지를 사후규제로 가져가는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KT는 IPTV 법이 오히려 사업자에게 규제 강화 조항이 많으며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주교 상무는 "1/3 이상 가입자 초과 금지, 권역별로도 1/3 초과 금지 조치 등 특별법이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강화 쪽으로 되어 있어 사업 전개에 어려운 환경"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SO협의회 이덕선 류릭스 대표이사는 "매출규모를 비교해봐도 KT의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해 별도 법인 분리는 불가피하다"며 "최소한 사업분리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협회 대표로 나선 김종규 MBC 뉴미디어 부장은 "IPTV 사업에 있어 KT 본사의 조직분리를 주장

하는 진영도 있지만, 유선시장이 SO들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분리는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참여 규제 완화

이날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IPTV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 콘텐츠 사업에 진출하는 대기업의 기준을 현 시행령 안에서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할 것 보다 좀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재계의 입장을 전달받은 바 있다"며 대기업 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서 정책관은 "글로벌미디어시장을 고려해 대기업이 종합편성 PP컨텐츠 산업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좀더 넓게 열어주는 부분을 고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IPTV에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진출 대기업의 자산규모를 현 3조원 이하에서 10조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나친 대기업 진입 완화 조항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 만일 방통위가 재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를 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규 MBC 뉴미디어 부장은 "10조원 규모의 대기업이 종합편성 PP로 들어온다면 지금도 경쟁이 치열한 콘텐츠 시장에 가격경쟁은 물론 제작비의 급격한 상승과 독과점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신장경영 허용 정책 흐름 속에서 대기업 진출 기준 완화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청자 보호 규정

한편, 시민단체 대표들은 시행령이 사업자의 경쟁경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시청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혜란



▶ 지난 5월 23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IPTV법 시행령 공청회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소장은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기술적 가이드라인이나 심의 규정 이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하고, 경쟁상황평가를 IPTV 사업자뿐만 아니라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현재 IPTV법에는 약자, 소외 계층을 위한 가격 차별화 문구가 하나도 없다. 특히 장애인들의 경우 셋톱박스, 리모컨 등을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며 "이는 PP역시도 마찬가지로 미디어 차별화를 마련해야 하지만 찾아볼 수 없다. 방통위는 IPTV법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명시했으면서도 지금 보면 플랫폼 사업자들의 진흥탕 싸움에만 골려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6월말 시행령-고시 모두 마무리

방통위는 6월말까지 시행령과 고시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종합편성, 보도전문 PP 사업 참여 대기업의 자산기준을 10조원으로 높이는 것은 글로벌 미디어 시장환경을 고려한 측면이 있으며 좀 더 검토해 보겠다"면서 "지배적사업자의 '법인분리'를 강제하지 않는 것은 법정정 당시 자회사 분리하지 않는 대신 지금 같이 엄격한 회계분리를 하는 방향으로 법제계를 갖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정책관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PAR과 UAR 적용 기준을 혼용한 실수도 있으며, 콘텐츠 제공은 기본적으로 자율협상을 전제로, 아주 제한적 의미에서 도입하겠다"며 "IPTV 법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의 의미가 채널이나 아니냐에 대해서도 법제처에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6월말까지 정부내 입법절차를 통해 시행령 제정작업과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불멸의 전염인자 '프리온'

세계보건기구, 광우병 21세기 가장 무서운 질병 될 수도

광우병을 유발하는 물질은 '프리온'이라 불리는 단백질이다. 프리온으로 인한 질병은 산발성CJD(sCJD), 광우병소를 먹어서 생기는 인간광우병(vCJD) 등으로 나타난다. 광우병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 질환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자.

1989년 예일대학의 '로라 마누엘 리디스' 박사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죽은 환자 46명의 사후 부검을 실시해 이중 6명이 알츠하이머가 아닌 CJD로 죽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1989년 의학잡지(신경학 Neurology)에 게재된, 피츠버그 의과대학에서도 사망한 환자 54명의 뇌를 검사한 결과 그중 3명, 즉 5%의 환자가 CJD로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다.

2002년 영국 런던대학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갈아 쥐에 투여하였다. 그 결과 광우병인 vCJD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놀랍게도 두 번째 쥐 그룹에서는 sCJD가 발생한 것이다. 한달 후 예일대학의 '로라 마누엘리디스' 박사는 UPI통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사람들은 CJD를 보았을 때 이것이 광우병(vCJD)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스위스 주립대학 연구원인 '아드리아노 아구치' 교수는 뉴잉글랜드의 의학잡지인 "NEJM"에서 2001년 sCJD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스위스에서 두배로 더 많이 일어난 것은 광우병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발표했다.

2001년 1월 미국 뉴저지의 트랜턴 남쪽 '시네

민스'이라는 조그만 시골도시에서 '캐리 머헨'이라는 CDJ환자가 발생하여 한달만에 사망한다. 그녀의 나이 29세였다. 2003년 CJD로 사망한 '캐리 머헨'의 친구였던 '제니 스카벡'은 우연히 신문의 부고란에서 '캐럴 올리브라'는 사람이 CJD로 사망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캐럴 올리브'가 그녀의 친구인 캐리와 같은 경마장인 '가든스테이트 경마장'에서 일했다는 신상정보를 보았을 때 "나는 쓰러질 뻔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후 "제니 스카벡"과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하는데 그 결과 2001년 1월부터 ~ 2004년 4월까지 죽은 15명의 CJD환자 모두가 "가든스테이트 경마장"의 음식점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가 말한 15명의 환자 이외에도 여러명이 퇴행성 뇌질환으로 사망하였는데, 뇌에 대한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원인이 CJD인지 다른 질병인지 확인할 바는 없다. 위 사건 이외에도 1993년 펜실베이니아, 1994년 플로리다, 1996년 오리건, 1996년 텍사스, 1999년 뉴욕, 2000년 뉴욕 등에서 CJD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어떠한 질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그 질병에 특정한 원



인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산발성 CJD(sCJD)의 기존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2003년 9월

스위스 주립대학의 CJD전문인 '아드리아노 아구치' 박사는 뉴잉글랜드의 의학잡지에서 CJD환자의 1/3정도에서 비장과 근육에서 프리온 단백질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아구치 박사는 2004년 2월 또 하나의 폭탄 같은 발표를 했다. vCJD가 혈액의 수혈로써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우병이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 뉴스를 들은 영국정부는 현 혈금지 조치를 내렸다.

2005년 5월 또 하나의 놀라운 보고가 발표됐다. 영국의 플리머스 시 테니포드 병원의 연구원인 '데이비드 힐턴'과 동료들이 (병리학 잡지)에 논문을 게재 하였는데 맹장수술 또는 편도선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맹장과 편도선을 산발적으로 입수하여 vCJD를 조사한 결

과 여기서도 프리온이 발견되었고, 이 맹장과 편도선의 60%가 수술 당시 20~29세 사이의 사람들 것이었다. 이 논문은 건강한 대중에게서도 vCJD가 존재하며, vCJD를 지닌 외견상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수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 하였다. 또한 이들을 수술한 도구로 인해 2차 감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광우병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위험한 질병일 수 있다는 것이고, 세계적으로 광우병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산 소, 그것도 광우병 위험인자가 포함된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를 모두 수입한다고 하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세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광우병(프리온 질환)에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으며 세계 보건기구(WHO)도 광우병이 21세기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국민대책회의가 밝힌 최소 안전기준

1700여개 시민단체 및 네티즌으로 구성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최소 안전기준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 고시를 철회하고 7가지 최소 안전기준을 반영한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정부가 고시할 예정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국민들 광우병 위험에 노출시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히며 7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30개월이상 전 면수입 허용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광우병에 무방비로 노출돼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며 "광우병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 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빼 없는 살코기 수입"을 제시했다.

정부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들을 모든 연령의 편도, 회장원위부, 30개월이상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수로

규정한 것에 대해 "EU, 일본 기준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하며 "광우병 위험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최소 안전기준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 고시를 철회하고 7가지 최소 안전기준을 반영한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수입을 허용한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에 대해서도 "광우병 위험증가우려와 미국 축산업자들의 경제적 이익만 극대화할 뿐이라며 전면 수입금지"를 제시했다.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을 미국정부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미국 축산업자들의 수출절차를 간편화할뿐"이라며 "한국정부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검역중 SRM발견시 정부는 최초 1회발견시 검역중단을 못하고 동일 작업장의 별개 로트에서 최초 2회발견시 개선조치가 취해 질때까지 중단하도록 한 것에 대해 "수입검역 중 광우병 위험물질 등배신경절 및 척수로

최초 1회 발견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중단, 원인 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시에는 수입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쇠고기 제품 유통표시를 안하고 티븐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만 180일동안 30개월 미만표시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해 "미국 축산업자들에게만 특혜조치가 될 뿐이기에 미국산 수입 쇠고기 모든 부위 유통 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수입위생조건 중 수입중단 조건 5조의 완전 삭제를 요구했다. 국민대책회의 소속 국민건강을위한수사의연대 홍하일 위원장은 "우리가 왜 안전하지도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합니까"라며 "광우병 발생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소한 수입을 한다면 이것 만이라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대책회의는 "현직 실사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정부에게 통보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너무나 허점이 많다. 한국정부가 도축장 승인권과 취소권을 가져야한다"며 농식품부 고시를 저지하기 위해 26일부터 28일까지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북지방본부 신촌지부 정진항 조합원의 마라톤 인생 11년

“극한 도전! 그것이 인생의 참맛이다”

노동조합은 특정분야에서 경지에 도달한 조합원을 선정해 매월 노보에 게시합니다. 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취미생활, 봉사활동, 해당업무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보통사람이 하지 못하는 경지에 도달한 조합원이면 참여가능합니다. 주변에 그러한 조합원이 있다면 추천해주시요.



마라톤 풀코스 136회 완주. 뛰는데 일가견이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마라토너 정진항 조합원. 그런 그는 영입활동을 하면서 항상 “출발! 42.195 끝!”을 외친다. 마라톤 경기는 올림픽에서 마지막 열리는 종목이다. 뛰는 거리는 42.195km. 다른 어떤 경기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이 강하고 중요한 경기인 것이다. 정진항 조합원은 그런 자신과의 싸움을 11년 동안 136회나 반복해오고 있다.

마라톤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특별히 계기가 된 사건은 없었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운동이 무엇이고 활동적이고 건전한 운동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무작정 시작했습니다. 1997년 우연히 동아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처음으로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뛰는 동안 죽을 듯한 고통에 시달렸지만 완주하고 나니 마음속에서 자부심과 자긍심이 넘쳐나는 것을 느꼈지요. 그것이 반복되다보니 벌써 11년 경력에 풀코스 136회라는 기록을 만들어간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4년전 제주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 울트라 마라톤은 100Km를 뛰는 것인데 근력, 지구력, 정신력 등 모든 면에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죠. 10시간을 넘게 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다음날 공주에서 마라톤 풀코스가 예약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 다음날 과연 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됐죠. 지금 생각해봐도 무모한 일정이었던 것 같은데 정작 공주 마라톤 풀코스를 뛸 때는 기분 좋게 뛰었습니다. 극한에 도전하고 상황에 대처하면 그것을 또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마라톤의 매력

이 고 도전의 힘인 것 같아요.

주로 국내에서만 마라톤을 하셨나요?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모든 마라토너의 꿈일 것입니다.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서윤복, 함기용, 이봉주 선수 등 우리나라의 유명 마라토너도 우승한 기록을 가지고 있죠. 저도 2005년 보스턴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인상깊은 점은 마라톤이 110년 동안 코스로 바꾸지 않고 길도 확장하지 않은 채 그 지역의 가장 큰 축제로 자리잡았다는 점이지요. 특히 길가에 응원 나온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꼬마 어린이와 학생들이 물과 오렌지, 아이스바, 빵, 바나나 등을 가져와 나눠주기도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바나나를 손에 쥐고 선수를 바라보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상당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고 기록은 어느 경기에서 얼마를 기록하셨는지?

2006년 임진각에서 개최된 손기정 평화 마라톤 대회에서 기록한 3시간 9분이 최고 기록입니다. 그 당시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상당히 추웠는데 몸이 굳고 경련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면서 페이스 조절을 해야 하는데 그냥 내 몸이 끄는대로 달려보기로 마음먹고 일단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이 돌로 갈라져 있다는 것은 비극이지만 통일의 필요성을 되새겨 보았던 경기였고, 그래서인지 무척이나 의미있고 기분좋은 경기였습니다. 언젠

가는 개성까지 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라톤 중 가장 힘든 시점은 언제고, 그 극복은 어떻게 하시는지?

30km, 33km, 38km 정도 지날 때가 가장 힘들습니다. 처음 10킬로미터를 지날 때 내가 과연 나머지 30km를 지금 이 힘과 속도로 뛸 수 있을까? 혹시 과욕을 부려 에너지가 초반부터 많이 소모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초조함과 함께 달립니다. 20km를 지날 때는 아직도 21km 정도가 남았다고 생각하다가 아니지 벌써 20km를 달려 반환점을 지났는데 하는 긍정적인 판단도 합니다. 30km를 지나게 되면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무릎과 종아리, 허벅지 등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다리는 기계적으로 일사없이 뛰어야 하는데 발바닥이 지면을 닿을 때마다 온몸으로 통증이 전달됩니다. 그러다보면 체력과 정신력은 공황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골인지점까지는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 그리고 통증을 잊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 됩니다. 저는 통증이 강해질 때마다 이를 잊기 위해 온갖 다른 생각에 몰두합니다. 골인지점에서 환호하는 시민들을 상상하거나 업무상 등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상들을 하면서 달리는 것이 통증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라톤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건강이죠. 일년 내내 아침 5시 뛸 일이나 10km를 뛸다. 풀코스를 뛰기



위한 준비이기도 하지만 준비과정이 전병치레 한번없이 살게 해준 가장 큰 원동력일 것입니다.

둘째로 정신적인 성숙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당장이라도 그만 달리고 싶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한 유혹이 풀코스를 뛰는 동안 수십번이 반복되죠. 그러나 결국 완주하고 나면 더할 나위없는 쾌감을 느낄 수 있고 또다시 다음 경기를 하고 싶

다는 욕구를 가지게 합니다. 세번째로는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 명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을 하다보니 많은 고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업고객의 경우에는 마라톤을 통해 담당 직원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좋고 이를 통해 계약성사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물론 마라톤 동호회 사람들도 나에게 훌륭한 고객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전국조합간부 역량 강화 교육 참가기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뒤돌아본 교육이었다”

내 좋지 못한 기억으로도 처음 인 듯한 노동조합 여성부자들의 교육이 있다고 한다. 1박2일로 대전에서... ‘에이~’ 하고 수련관 같은데서 그냥 편하게 좀 쉬면서 사우나도 하구 했으면 좋는데.’ 하면서 난 혼자 중얼 거려본다. 옆에서 팀장님께서도 폭 쉬고 오라고 한다. 아침 일찍 서둘러 대전에 도착하고 일정을 대충 보았더니 조금 뻘뻘한 일정 같았다.(속으로 설마 이걸 다 하겠어? 대충 하겠지 ^^) 그런데 점심 식사후부터 시작한 교육은 나의 상상을 완전히 깨고 있었다. 2007년의 생생한 활동 영상물을 보면서 뭘지 모르는 것이 가슴에서 울컥 솟았다. 365일의 힘듦과 어려웠고 또 보람되었던 그 모든 일들을 불과 맷반의 영상물에 다 담지 못했음에도 우리 모두의 가슴을 적시기에 충분하였다.

지난해 어느 더운 여름날 차마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보았던 위원장님 이하 지부장님들이 분사 앞에서 쓸쓸하게 투쟁하시던 그 모습이 갑자기 생각났다. 우리 몇몇 조합원들은 둔치에서 집회가 끝나기를 기다려 같이 동참 못한 미안함을 몇잔의 술로 달래고 울분을 토했던 일들이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적당히 쉬었다 가지던 내 생각이 잘못 되었음을 알았다. 모든 국장님들의 열정이 넘치고 성의 있는 교육은 가는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열강이었다. 우리는 밤 늦도록 그 동안의 이야기를 털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기숙사까지 자리를 옮겨 서로의 이야기를 하느라 밤잠을 설쳤다. 과연 노동조합간부 교육답게 기숙사

도 열악한 환경이었다. 하지만 지나간 시절을 생각하면 이것 역시 과분한 대접이 아닐런지... 열강하는 분위기에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세차레나 못 받았더니 우리 팀장님 ‘넌 재미있게 노느라 전화도 못 받나?’ 하신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군요! 화창한 5월의 아카시아향기 가득한 교육과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교육을 마무리 하고, 난 그동안 멀리 했던 노동조합의 일들에 대해 많이 미안해지겠어 이제라도 여성간부로서 자긍심을 갖고 현업으로 돌아가 조금이라도 모두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탬을 주는데 최선을 다해보고자 생각하면서 대전을 떠났다. 급변하는 대내외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자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알

찬 교육이었다. 다른 지역의 여성간부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꺼리꺼리 모여서 있다가 온 점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래도 이런 교육은 중앙본부보다 지방본부에서라도 주최하여 정기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참으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위원장님 이하 우리 여성 국장님 그리고 교육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교육담당 국장님들 모두에게 힘찬 박수 드리며 단결투쟁인사로 마무리 해본다. “단결! 투쟁!”

강남지방본부·서울강남NSC지부 홍순호 여성부장

“능동적·적극적인 사고로 행동하고 당당하게 맞서는 지혜를 갖게 됐어요”

교육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진한 기대감으로 설렘이 가득 했다. 여러 해 동안 간부직을 맡아 왔지만 조합교육은 처음 있는 일이고 가끔씩 아쉬웠던 부분으로 남아 있었기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임마가 없는 빈자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서를 다림질하고 밑반찬도 준비하면서 출발 하루 전부터 부산한 시간을 보냈다. 지방본부에서 마련해준 버스에 몸을 싣고 일에서 벗어난 쾌감을 맛보며 시선은 어느새 차량 밖을 향하고 마음은 이미 도착하여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인가에 공금한 내 마음은 잔잔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점심 식사를 끝내고 위원장님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교육일정으로 들어갔다. 국내외 주변전세와 KT 현실에 직면해

있는 사안들, 또 우리 KT와 KTF의 통합관련 상황, KT 창사이래 가장 큰 변화의 역동기를 맞이해야 한다는 지금의 현실 등등 그냥 흘러 들 수 없었다. 위원장님과 대화시간이 끝나고 선전선동 교육이 이어졌다. 교육 받은 내용들이 실습으로 이어지며 울퉁과 함께 목청 높여 마음껏 소리도 지르고, 발음 연습에서는 폭소를 자아내는 해프닝이 연출되기도 했다. 선전선동 교육은 패기와 박력으로 노동조합 교육을 받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여성의 지위와 역할, 여사원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례들을 모아 개선사항들을 유추해내는 ‘분반 토론회’였다. 4개조로 나누어 발표한 내용들은 모두 대동소이했다. 인사상의 불이익, 업무중요

도가 낮은 일들을 주로 하는 이런 현실들은 무엇 KT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감을 했고 우리 스스로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라고 인식했다. 또한 약한 여성, 아줌마, 아이 엄마라는 이류표 앞에 직장여성이라는 사명감을 앞세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행동하고 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습득하여 모든 면에서 뒤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음날 유익한 복지후생교육을 받았다. 복지기금은 복무담당에 당연히 행겨서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치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알았다. 자기 깃은 물론이고 조합원들까지도 챙겨볼 수 있도록 각인 시켜 주었다. 더불어 임금피크제, 연봉제, 선택적 복지제도의 내재된 실상도 알게 되었다.

1박2일이라는 짧은 일정의 교육을 받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다. 조합간부의 직함을 갖고는 있었으나 평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있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반성과 미안한 마음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갖게 해주었다. 우리지부는 매월 간담회를 하고 있지만 좀더 결속된 친목도모와 활성화를 위해 주1회는 아침 티타임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보 교류와 현안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부산지방본부·대연지부 신정애 여성부장



제5회 위원장기 전국조합간부 축구대회

미국쇠고기 수입 고시 발표와 관련 특별결의문도 채택



제5회 위원장기 전국조합간부 축구대회에서 공동우승한 서부지방본부와 제주지방본부가 지재식위원장과 함께 단결과 필승을 결의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제5회 위원장기 축구대회를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구례강변 시민축구장에서 개최했다. 지재식위원장은 축구대회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참가 수준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노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의 축구대회를 단순한 운동경기가 아니라 조합간부들이 더욱 단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본부가 공동우승을, 부산지방본부와 경북지방본부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또한 릴레이 500M 계주에서는 강남지방본부가 우승을, 대구지방본부가 준우승, 제주지방본부가 3위를 차지했다. 줄다리기는 우승 충남지방본부, 준우승 강남지방본부, 3위는 경북지방본부가 각각 차지했다.

이번 축구대회는 KT 전 계열사의 노동조합 위원장들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KT그룹노동

조합의 연대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을 증명해주었다.

한편, 전남 지재식위원장은 조합간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당면한 정세와 통신시장의 변화 그리고 KT-KTF 합병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디지털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5공 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배후세력을 만들고 몰아붙이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

라고 밝혔다. 이어 KT와 KTF의 합병문제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 거론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 거론을 언급했다. 일단 KT-KTF 통합이 통신환경 변화에 부합하고 매출대비 인건비 비중에 대한 압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요소를 설명했다. 그러나 내부구조의 변화도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KT플러자와 IT본부의 문제를 언급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은 무엇보다 조합원의 노동조건이 하락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원칙을 강조했다.

조합간부들은 입소식 직후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의 미국쇠고기 수입 고시 발표와 관련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조합간부들은 30만 통신가족의 이름으로 미 쇠고기 수입 저지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 협정 고시철회와 재협상이 될 때까지 투쟁할 것 ▲30만 통신가족과 함께 미국산쇠고기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 ▲전 구내식당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 ▲한-미FTA 협상이 전면 무효화 될 때까지 투쟁할 것 등을 결의했다.



오월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열려

광주에서 반 노동정책 규탄, 6월말 7월초 총력투쟁 선포

지난 17일 KT노동조합을 비롯한 IT연맹은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 민주노총 '오월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진미보수정권 반 노동정책을 규탄하고 6월말 7월초 총력투쟁을 힘있게 선포했다. 전야제 이후 (구)전남 도청에서 1만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미친소 막아내자!"라는 촛불문화제에 참여해 광주시민과 함께 "이명박 탄핵! 미친소 수입하는 이명박을 때려잡자!"라는 구호를 연이어 외쳤다. IT연맹 산하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전남 지방본부 조합원들이 참석한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요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더 이상 어른들에게 자신 건강과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길거리로 뛰어나오고 있다"며 대회사를 시작했다. 이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3개월도 안돼 지지율이 22%로 추락했다"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두환 독재정권 맥을 잇는 이명박 정권을 끝장낼 수 있으며 그 중심에 민주노총이 서

있다"라고 강조했다. 광주역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대오는 오월항쟁 당시를 기억하며 주먹밥을 나눠먹은 후 롯데백화점→삼상빌딩→금남로→도청으로 가두행진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광주시민들에게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반 시민정책들을 알리면서 오월정신을 계승해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을 벌이자고 선전했다. 구 전남도청 앞에 도착한 노동대오는 이미 시작된 광우병 쇠고기 저지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것으로 5.18 전야제를 대신했다. 많은 시민·학생들이 자유발언을 통해 광우병 걸린 소를 국민에게 먹이려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면서 결집된 국민의 힘과 끈질긴 투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자고 결의했다. 이날 광주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와 투쟁열기로 술렁거렸고, 참가자들은 천박한 독선과 오만으로 민중을 짓밟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단호한 심판을 선포했다.

KT산업안전보건대회 열려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증진 활성화 도모

2008년 제7회 KT산업안전보건대회가 노·사 공동으로 안전/보건실무담당자 및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이 참석한 가운데 도고수련관 대강당에서 5월 20일(화)부터 21일(수)까지 양일간 개최됐다.

이날 대회는 중대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사업장 내 건강증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7년 산업재해 성과분석과 2008년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정책발표가 있었다. 또한, 사외에서 초빙한 공인노무사로부터 안전보건 최신동향 및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과 재해조사 기법 및 관리감독자의 임무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이와 함께 안전마인드 함양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건강 패러다임이라는 주제 중심으로 사내 강사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류춘용 조직처장은 이날 축사를 통



해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사고로 말미암은 산업재해가 잦았지만 지식기반 산업사회인 현재는 정신적 스트레스

탓인 질병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기업들의 인력 구조 조정으로 정원이 축소되고 이에 반비

례해 노동강도가 심화한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명예감독관이 주체가 되어 KT조합원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무재해 인증 사업장 신제주 지부 외 8곳과 안전보건 e-러닝 교육 우수·활동교사 124명에 대한 포상이 있었으며 안전보건 우수사업장의 안전활동에 대한 사례 발표회를 통해 주요 활동 내용을 공유했다. 아울러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안전보건 관련자료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재해 인증사업장으로 인증 받기가 어렵다며 기관 통폐합이 되더라도 무재해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사내 사이트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랑실은 노래봉사단' 400회 특집 자선공연

소외된 이웃 찾아 희망선물 16년



노래와 춤 등 무대공연으로 외로운 이웃에 사랑을 전하는 음악 동호인들의 모임인 '사랑실은 노래봉사단' (본사지방본부 호남고객센터 김효중 지부장)이 활동을 시작한 지 16년 만에 400회 특집무대를 마련했다.

노래 봉사단은 5월 23일 오후2시 광주 동구 KT광주정보통신센터 대공연장에서 광주시민 등 복지시설 수용자들을 초청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이란 주제로 400회 특집 자선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은 봉사단 회원 54명이 참여해 노래와 춤·마술 공연을 선보였다. 초대가수로 현숙·조항호 등 초대가수 공연, '이카루스 안무단'의 춤, 밸리댄스·군

악대 공연 등으로 진행했다. 또한, 공연에 앞서 귀원 등 12곳에 성금 600만 원을 전달했다.

봉사단이 결성된 것은 1993년 9월이다. 김효중 지부장이 광주MBC노래마당 심사위원을 맡으면서 각종 노래자랑 입상자들을 두루 알게 된 것이 계기였다. 그는 당시 각종 가요제에서 잇따라 수상해 심사위원을 맡았으며, 방송국 가요제와 노래자랑 대회에서 입상한 공무원, 교사, 회사원, 주부 등 90여 명으로 결성돼 불우이웃과 복지시설을 찾아 매월 정기공연을 펼쳐왔다. 차츰 전자오르간·무용 동호인들도 참여해 단원은 현재 120명에 이르렀으며, 위문·특집공연 등을 통해 모두 6억5000여 만원의 성금과 물품을 지원해 왔다.

이날 공연에서 김효중 지부장은 "경로효친의 달을 맞아 우리 사회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 무대를 준비했다."라며 광주시의 인기가수의 등용문인 '무등가요제'를 개최하는 등 문화예술을 활성화 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체신공제조합 최후 배당금 송금불능자 내역 통보

체신공제조합 파산채권 관련 최후 배당금을 송금하였으나, 등록된 개인별 은행계좌가 입금이 불가하여 송금처리 되지 않은 조합원이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각 지부에서는 공제조합 파산채권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위의 동료 및 선·후배께서는 연락이 가능한 퇴직 조합원께도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송금불능사유: 입금계좌 「휴면 및 계좌해지」 상태

□ 체신공제조합 홈페이지: <http://chegong.or.kr>

□ 추가 지급계획 - 해당 소속국에 협조 요청 안내문 발송

- 최종 미확인 조합원(채권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할 예정입니다.

※ 은행계좌 해지 등에 따른 송금불능 조합원(채권자)에 대해서는 계좌변경신청 접수가 되는대로 재송금을 하고 있으며,

배당금 미수령 조합원(채권자)은 은행계좌를 확인하시어 체신공제조합으로 연락(☎02-775-6211~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